

『韓国語教育研究』(第 11 号) 別刷

ISSN 2186-2044

【寄稿論文】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학 연구기법 동향과 과제

김 중섭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1年9月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학 연구기법 동향과 과제

김 중섭

200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학에서 양적연구 기법은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통계기법에 기반한 양적연구 실적물이 축적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전적 제언을 더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15년간 한국어 교육학 내 주요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00년대 초반 이후 통계 기법을 활용한 연구물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방법론적 규약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학 연구 성과물을 살펴 보고 연구기법에 대해 발전적 제언을 논하였다.

1. 연구 목적과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론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존 양적 연구 논문에 적용된 통계 기법과 연구 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통계 기법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범주화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 양국 한국어 교육학 내 연구 성과물을 분석하고 발전적 제언을 더하고자 한다. 국내 연구 성과물의 경우 2000년에서 2014년까지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국어국문학>에서 발표된 총 1835편의 논문 중 추론통계를 적용한 72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단순히 계량적인 수치나 기술 통계만이 적용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사 검토 논문에서 제시된 제언과 논의를 덧붙였다. 또한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물인 경우 최근 발표된 연구사 검토 논문들에서 제시된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2.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학 양적 연구 현황

2.1 시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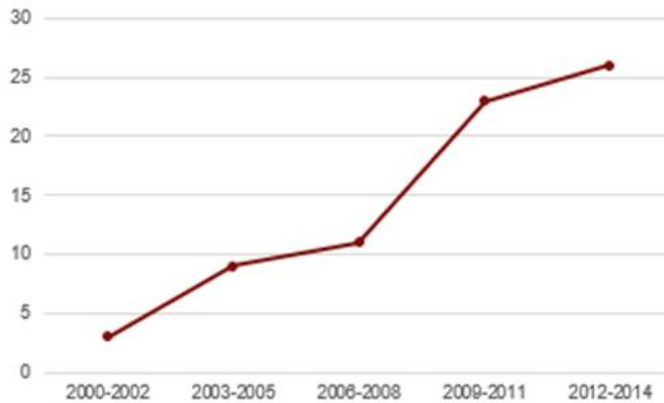
추론통계가 적용된 7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중언어학>에서 38편, <한국어교육>에서 28편, 그리고 <국어국문학>에서 6편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00년대 초반

에는 추론통계가 적용된 양적 연구가 매우 적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고, 2009년 이후 발표된 논문의 양에 있어서 안정세를 보였다.

적용된 통계기법의 유형을 분석하면 t-test와 변량분석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비중이 높았다. 카이스퀘어 등 빈도분석 기법이나 회귀분석(공변량 분석 포함)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고급기법으로 분류되는 구조방정식 기법의 사용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학 내 통계기법적용 논문량의 추세를 분석하면 표1과 같다.

표 1. 한국어 교육학 내 통계기법 적용 논문량의 추세 분석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양적 성장과 함께 점차 다양한 기법이 도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운용 상에 있어서도 초급 통계기법에서 고급기법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t-test나 변량분석, 혹은 상관관계 분석 등 기초 통계기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연구 주제의 확장에 따라 비모수 검정과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교육공학적 기법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더욱 널리 쓰이고 있으며, 분석에 사용된 전체 332편 중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양쪽 모두가 혼재된 혼합적 연구방법론을 사용된 경우가 61편이나 되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강승혜, 2017).

적용된 통계기법의 유형을 분류한 표2를 살펴보면 적용된 t-test와 변량분석의 높은 사용빈도는 실험 심리학 및 언어습득 관련 연구가 한국어 교육학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낸다. 비모수 검정 기법은 t-test나 변량분석과 같이 집단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나, 표집 된 실험참가자의 수가 지나치게 낮을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표2. 적용된 통계 기법의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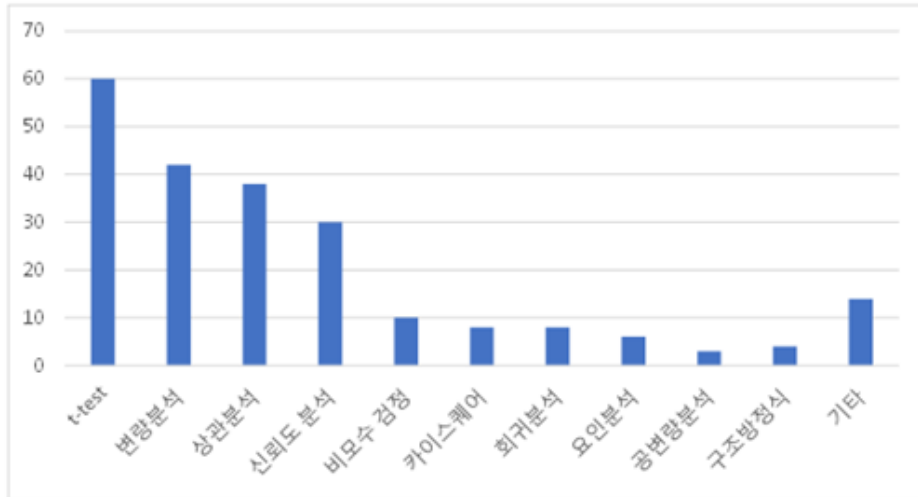


표2를 살펴보면 비모수 검정 기법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t-test나 변량 분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한국어 교육학 연구는 대체로 충분한 수의 실험 참가자를 확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72편의 연구 중 과반 수 이상의 연구가 30명 미만 혹은 50명-100명으로 이루어졌으나, 100명 이상의 대규모 연구 사례의 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으로 나타나 한국어 교육학 내에서 통계기법의 방법론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은 주로 평가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나 시계열적 신뢰도를 측정하며, 상관관계는 복수의 측정도구간의 수렴타당도를 나타내는 기초적인 통계 지표로 사용된다. 두 분석기법의 사용빈도가 높음이 확인되어, 한국어 교육학 내 양적연구에서 평가 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이 흔히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타당도는 단순히 상관관계보다는 요인분석을 통해 면밀히 살펴야 적절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가 분야의 양적연구는 방법론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2 연구 분야별 분류

전체 72편의 연구 성과를 분류하면 심리언어학 및 언어습득 관련된 연구 30편, 평가와 관련된 연구 22편, 학습자 변인과 관련된 연구 15편, 그리고 코퍼스 분야 연구 1편으로 나누었다.

2.2.1 심리언어학 및 언어습득 분야 연구

심리언어학 및 언어습득 분야에서는 총 30편의 논문이 확인되어 양적 연구 사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분야는 2001년 <이중언어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한국어교육>에는 2004년부터 담화 분야 연구를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게재되었다. 주제는 어휘 9편, 문법성 판단 7편, 발음 6편, 화행 6편, 의미론 1편으로 세분화된다. 2005년까지는 대부분 어휘연구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변량분석 및 t-test, 상관관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이었다. 실험참가자의 수는 8명에서 280명까지로 매우 편차가 크나 평균값은 66명, 중앙값은 55명으로 대체로 50-60명 사이에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2.2.2 평가 분야 연구

평가분야 연구에서는 총 22편의 논문이 확인되었고,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모두에 고르게 분포되어 게재된 연구 성과물의 수에 있어서 학술지 간 편차가 적은 분야로 생각이 된다. 세부적인 연구 분야는 쓰기 7편, 말하기 5편, 어휘 4편, 시험 타당도 검증 4편으로 나뉜다. 참가자 수의 평균값은 61명, 중앙값은 65명으로 대체로 60명을 조금 넘었다.

2.2.3 학습자 변인 분야 연구

학습자 변인 분야 연구에서는 총 15편을 확인 수 있었는데, 이 분야는 언어 성취 및 언어 습득의 복잡한 국면을 밝히기 위한 학습자 개인 변인에 대한 공학적 접근을 중시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기존 교육공학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참가자의 규모가 평균값 140명, 중앙값 139명으로 확인되어 규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문지 배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다는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비교적 다양한 통계기법이 사용되는 분야로 통계기법의 꽃이라 불리는 회귀분석이 자주 사용되며, 고급

기법으로 분류되는 구조방정식 기법이 사용된 사례도 2편이 확인되었다.

2.2.4 코퍼스 관련 분야 연구

코퍼스 분야 연구에서는 단 1편만이 확인되었다. 코퍼스 관련 논문의 수는 적지 않게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코퍼스 데이터에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사례들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 포함 시킨 코퍼스 연구 또한 엄밀히 분류하면 추론통계를 사용한 사례가 아니었으며 단지 학습자 오류 코퍼스를 설계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었다. 현시점에서 학습자 코퍼스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통계기법이 적용된 연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2.3 통계 오용의 유형 연구

통계 오용의 유형 분야 연구에서는 전체 72편의 연구 성과물을 확인한 결과 주로 세 가지 유형의 통계 오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첫째,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의 이름이 제시하지 않은 경우, 둘째는 정규성 검사 미실시, 셋째는 적절한 사후 검사의 미실시로 오용 사례가 확인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연구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전체 72편의 연구 중 과반수가 넘는 37편의 논문에서 분석 과정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 대다수가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만을 사용하고 있어 굳이 이름을 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과학 내에서 저작권법 혹은 SPSS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수한 기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SPSS 사용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계산법이나 사후 검사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통계 프로그램명을 해당 연구가 어떠한 과정과 통계적 가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어서, 중요한 방법론적 단서를 밝힐 수 없어서 이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2.3.2 정규성 검사 미실시

정규성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지표로 모수 검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규성 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수 검정을 사용할 수 없고 비모수 검정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t-test와 변량분석을 흔히 사용하는 한국어 교육학의 특성상 이러한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판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72편의 연구 중 단지 6편만이 정규성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모수 검정 사용 여부를 진행하였다. 정규성 검사로는 Kolomogorv-Sminov test 혹은 Sappiro-Wilk test가 흔히 사용되며, 정규성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용되는 비모수 검정의 경우 Mann-Whiteny test 및 Wilcoxon test, 그리고 Kruskal-Wallis test가 널리 사용된다.

2.3.3 적절한 사후 검사의 미실시

통계 분석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 판별에 있어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기 쉽다. 즉, 실질적인 처치 효과의 크기가 미미함에도 단지 표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의 실질적인 크기를 밝히기 위해 사후 검사의 사용이 권장된다. 전체 72편 연구 중 32편에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검사 명을 밝히지 않아 연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T-test나 변량분석의 경우 등분산 여부에 따라 사용되는 사후 검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후 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등분산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학 연구 현황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이 외국어교육과 학습에서 차지하는 한국어 교육과 학습의 위상은 확실하고, 2000년대 이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양과 질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세가와, 2019)

한국어 교육학 연구 사례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의 사례 자체도 충분치 않았으며, 연구 주제 또한 편중되어서 읽기나 듣기와 같은 언어기능 연구와 어휘 교육 연구가 미비하였다고 한다. (마쯔자키·나카가와, 2008).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연구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언어기능 교육 관련 연구가 미비함이 지적되어 왔다(오기노, 2015). 이후 일본에서 발표된 한국어 교육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오기노, 2019)

표3. 2008-2017년 일본 내 한국어 교육학 연구 사례 시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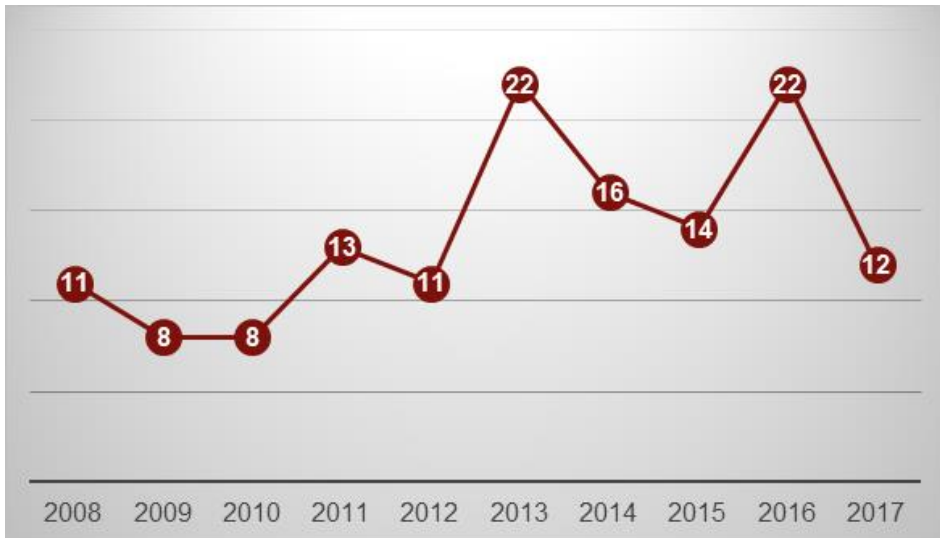


표3을 보면 2008년에서 2017년 약 10년간, 총 137편의 논문이 105명의 연구자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그 중 일본인 연구자가 43명(41%), 한국인 연구자는 62명(59%)로 확인할 수 있다. 출판 유형은 60개의 대학 논문집과 23개의 학술지에서 발표되었다. (오기노, 2019).

아래 표4 일본 내 한국어 교육학 연구 사례 주제별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일본 내 한국어 교육학 연구 사례 주제별 분류

주제	실태파악	언어기능	언어구조	교육과정	문화교육	대조분석	기타	합계
비율	17	6	32	61	9	11	1	137

연구 주제는 총 137편의 논문 중 61편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연구로 확인되어, 교육과정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교육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언어 구조 연구 32편이 확인되었으며 주로 발음, 어휘, 문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내 한국어 교육학 연구는 이론적 배경보다는 증가한 교육 수요 및 교육현장에서의 현실적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를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 제안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면, 첫째는 양적연구 방법론을 위한 제안점으로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 확대와 양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 개선이 필요하다. 양적 연구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대규모 자료의 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는 서술 지침과 통계기법에 대한 기준의 확립이다. 한국어 교육학의 통계적 접근을 활용한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규성 검사, 등분산 검정, 사후 검정 등의 절차가 학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통용되는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맥락에 맞는 기법이나 지표의 활용이 요구된다. 셋째는 대규모 자료의 수집으로, 한국어 교육학 내에서 실제적인 코퍼스 자료를 활용한 연구나 대규모 학습자 변인 데이터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기관 간의 협업이나 정부 지원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구축은 개인 연구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로 기관 간의 협업이나 정부의 연구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KAIST,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기관에서 빅데이터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학 연구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일본에서 출판된 연구 성과는 주로 일본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방안 및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교재 개발에 집중되어왔다. 이는 일본인 학습자의 성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의 특성상 언어습득이나 응용언어학 이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가 미비하며 추론 통계 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연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여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학에 국한된 연구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교육학, 언어습득 및 언어교육 이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5. 마무리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 연구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연구물에 따라 연구방법론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확보가 되지 않고, 실험집단에 대한 환경적인 통제에 대한 구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양적인 연구방법론을 활용해서 연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학의 교육현장에서 좋은 연구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리고 혼합연구 등의 다양

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 주제와 양적 연구방법론의 활용을 분석한 연구방법론이 잘 적용되었는지, 수정 보완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대규모 설문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의 신뢰도 확보하는 것으로 문항의 수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양적 연구에서 통계 방법을 활용할 때는 모국어, 연령, 목적등의 학습자 변인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 교재, 시수 같은 수업환경 요인 등 변인 통제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승혜(2017). 한국어교육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 연구 주제 및 방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7, 1-24.
- 김중섭(1999),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서울대국어연구소
- 김중섭(2004),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중섭(2010), 세계화시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어국문학회 53회 전국학술대회 기획 발표
- 김중섭(2014), 수정증보판 한국어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하우
- 김중섭 외(2014), 국내한국어교육 양적연구기법 사용 현황과 제안, 국어국문학회 58회 전국학술대회 기획발표
- 김중섭 외(2017), 한중 한국어교육연구 동향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어교육 28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가와사키유헤이(2019),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연구의 현황과 과제 :연구동향 및 학습자 대상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일본한국어교육학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
- 마쯔자키 마히루, 나카가와 마사오미(2008).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한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2, 87-114.
- 신지원,오로지(2017), 한국어교육 연구방법론에 대한 동향분석-양적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학회
- 오기노신시쿠(2015).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최근 동향 분석 - 2008~2014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6(1), 155-194
- 오기노신시쿠(2019). 일본의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 최근 10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3(2), 99-143.
- 하세가와유키코(2019), 일본에서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 일본한국어교육학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

(경희대 국문과 교수, 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대표이사)

jskim@khu.ac.kr

韓国語教育研究 (第 1 1 号)

2021 年 9 月 15 日 発行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 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